



만나고 싶었습니다.

슈퍼컴퓨팅사업팀

글 _ 김소영 · sykim8171@kisti.re.kr

사진 _ 김양희 · 대외협력과 · pr@kisti.re.kr



천문우주,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 R&D에서부터 TV나 김치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슈퍼컴퓨터의 활용영역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슈퍼컴퓨터.

이토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슈퍼컴퓨팅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가다듬고 최적화하는 '슈퍼컴퓨팅의 브레인' 들이 바로 KISTI 슈퍼컴퓨팅사업팀 사람들이다.



‘고효율 · 최적화 · 사용자 중심’ three step을 밟아라!



<우리팀은요...>

어떤 사업이든,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뒤에는 전체의 큰 틀을 보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청사진을 보여 주고 목표까지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람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 KISTI 슈퍼컴퓨팅 센터에서는 바로 사업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슈퍼컴퓨팅사업팀의 주 업무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슈퍼컴퓨팅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이다. 우리팀은 지난해부터 세계 5위권 슈퍼컴퓨팅 강국을 목표로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예산확보와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향후 슈퍼컴퓨팅 수요 예측과 활용계획 등에 관한 철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업체선정 및 도입절차가 한창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실은 현재 운영중인 슈퍼컴퓨터 3호기의 최적화와 기반장비의 활성화를 통해 슈퍼컴퓨팅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연구자들이 부족함 없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팀의 슈퍼컴퓨터 최적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특히 NEC SX 시스템의 서비스레벨과 테라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 웹기반 사용자 통계 도구 등은 미국 과학재단의 슈퍼

컴퓨팅센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한 웹 기반 작업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계정 관리 시스템, 그리드 어카운팅 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helpdesk도 운영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 학계와 산업계의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슈퍼컴퓨터 사용법을 소개하고, 슈퍼컴퓨팅센터 방문자들에게 슈퍼컴퓨팅 자원과 활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사용자 구좌수를 약 31%나 늘렸다.

우리팀은 자체적인 사업뿐 아니라 전국적인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 체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슈퍼컴퓨팅센터협의회 소속 14개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슈퍼컴퓨팅 자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팀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슈퍼컴퓨터 수요를 충족하고, 운영기술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e-Science 연구 환경의 핵심인프라로서 국가 슈퍼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R&D의 첨단화, 거대화, 융합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제 슈퍼컴퓨팅은 첨단 R&D의 필수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

슈퍼컴퓨팅사업실은 최첨단 슈퍼컴퓨팅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수준 높은 슈퍼컴퓨팅 자원을 부족함 없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팀 사람들을요...>



김 중 권 팀장

KISTI 최고의 센스쟁이다. 가을이 되면 세련된 반코트를, 겨울에는 멋진 목도리를 돌려주는 센스가 있다. 수려한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뛰어난 패션감각으로 여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는 그, 슈퍼 컴퓨터 4호기 도입이라는 중대한 과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실원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며 다독여 주는 것은 물론, 근방의 유명 '맛집'을 돌며 팀원들의 영양상태 관리까지 해주는 큰삼촌 같은 존재다. 현재 슈퍼컴퓨팅사업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정 희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20대 못지않은 열정과 계룡산을 매일 뛰어서 오를 정도의 놀라운 체력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사무국장 일을 담당하고 계시다. 과학기술계의 대선배로, 인생의 대선배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언제나 바르고 올곧은 말씀을 해주시는 든든한 분. 올해를 끝으로 정년 퇴직을 하시게 돼 서운한 마음이 앞서지만, 퇴직하시는 그날까지 더욱 건강하게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살라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상 동

거부할 수 없는 살인미소로 하루를 만나도 일년을 만난 듯 친근해진다.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친해 원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사람만큼이나 일도 좋아해서 한 번 일에 매달렸다면 밤낮이 없는 스타일. 그런 와중에도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을 어찌나 세심히 챙기는지, 아이들 숙제까지 전화로 도와줄 정도로 자상한 아버지다. 현재 슈퍼컴퓨터미래 사업 발굴 및 운영, 최적화 기술을 총괄하고 있다.



장 지 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열일 제쳐두고 해결사를 자처하는 사람. 그래서인지 우리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 서도 늘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거기다 항상 웃음과 장난기가 가득한 얼굴로 실 분위기를 UP 시켜주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한 그, 슈퍼컴퓨터 사용자 관리, helpdesk 관리, 센터 예산관리 지원 등 수없이 많은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식이나 체육행사 등등 실의 살림까지 도맡아 처리해주는 우리 시대 진정한 해결사다.



이 영 주

항상 편안하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인상처럼 박혀있어 옆집 아저씨같이 스스럼없게 느껴진다. 조용하고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을 한다. 취미도 화폐나 우표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요즘은 새롭게 골프를 시작해 점심시간 내내 퍼팅연습에 몰두하곤 하는데, 그 또한 빈틈없는 자기관리를 위한 투자인 셈. 현재 NEC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와 사용자 편의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다.



성 진 우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외모 이면에 장난꾸러기 같은 구석이 있다. 가끔씩 허를 찌르는 농담으로 팀원들을 웃음 짓게 만드는 그, 깡마른 몸매 어디에 그렇게 열정이 가득한지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하는가 하면, 업무에 관련된 세미나와 심포지엄에는 빠지지 않고 참가해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쓴다. 현재 PC 클러스터 운영 및 최적화, 통합운영관리 환경구축 등을 맡고 있다.



최윤근

눈이 커서 그런지 안 그래도 착한 얼굴이 더욱 선해 보인다. 파티션 가득 자신과 똑같이 눈이 왕방울만한 아들들 사진이 붙어있는 걸 보면 무척이나 가정적이기까지 한 그, 두 아들 때문에 고단할 아내를 위해 바쁜 아침시간에 집안일을 해치우고 나올 정도로 애처가이기도 하다. 유창한 영어실력과 다분야에 박학 다식한 그는 현재 고성능 데이터 저장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 보안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우준

재주가 참 많다. 음식점의 별맛 없는 메뉴도 그의 손을 몇 번만 거치면 전혀 새로운 별미로 탄생하고, 컴퓨터나 차도 몇 번 두드린다 싶으면 벌써 다 고쳐져 있다. 우리팀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그, 바쁜 업무 중에도 팀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관심이 가득 담긴 말을 건네곤 해, 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든다. IBM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스템 최적화 방법론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김성준

뚝 부러지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사소하게는 점심메뉴 결정에서부터 크게는 업무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팀원들에게 언제나 명확한 해답을 던져준다. 상당한 수준의 영화 마니아이기도 해서 영화표 예약을 하기 전에 항상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의 영화평이 어긋나는 일은 거의 없다. 현재 BIO SMP 시스템 운영 및 최적화와 사용자 편의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다.



김소영

참 화사하게 잘 웃는다. 웃는 모습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귀거나 챙기는 일 그리고 업무를 배우는 일에도 머뭇거림이 없다. 운동과 음악감상 같은 자신만의 취미생활도 열정적으로 즐길 줄 아는 그녀. 아직은 '수습' 딱지를 떼지 못한 상태지만 e-Science 구축사업의 성과확산과 슈퍼컴퓨팅 정책연구에 매진하면서, 미래 KISTI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홍윤주

지난 연말 송년회 이후 우리팀 전원은 그녀를 사랑하게 돼 버렸다. 어찌나 노래와 춤 실력이 뛰어난지 연예인은 저리가라다. 늘 밝은 얼굴과 애교 만점인 말투로 화기에애한 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녀. 일처리 또한 꼼꼼하고 정확해서 팀원들의 불편한 점, 힘든 점을 꼭 소리 나게 찾아서 해결해 준다. 슈퍼컴퓨터 사용자 계정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창희

첫인상은 '참 굵다', 두 번째 인상은 '참 친절하다'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특유의 낭랑한 목소리와 예쁜 웃음은 슈퍼컴퓨팅센터장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큼한 기쁨을 준다. 새해에는 꼭 예쁜 아기를 낳고 싶다는 그녀. 만약 딸이 태어난다면 미스코리아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 놓을 만 하지 않을까. 현재 슈퍼컴퓨팅센터장 비서를 맡고 있으며, 슈퍼컴퓨팅센터와 사업팀의 일반업무를 지원하고 있다.